

“새로운 인생 목표”

히13:1-4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교리를 배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1. 사랑하라

“(히 13:1)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의 심장이 좋지 않았고 숨이 고르지 못하여 점점 죽어가게 되자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때, 간호사가 “선생님 며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저 아이를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지요.”라고 말했답니다. 병원 법으론 안 되는 것이지만, 거의 죽게 될 아이이기에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아주었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건강해져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치유력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강령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2. 손해 보며 살아가라

“(히 13:2)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손해 보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에는 그가 가장 피곤한 낮 시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축업자들은 모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낮시간은 피곤한 시간이고 또 너무 더워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불편한 것을 기쁨으로 감수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최상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몸의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약간의 수고를 기꺼이 감수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손님을 영접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롯이 그들을 못 본체했다더라면 그들도 그날 밤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아라

“(히 13:3)자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당시에는 신앙 때문에 붙들려가서 감옥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가장이 감옥에 들어가버리면 그 가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의무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귀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 19:17).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 우리의 일하는 목적을 구제하는데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단하게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주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4. 순결한 삶을 살아가

“(히 13:4)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욕이 남아 있고 타락한 성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자기 욕망을 절대시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는 가장 상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전 3:5**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욕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이 마음에 들고 감정적으로 끌리더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을 넘어서는 것은 마귀의 사랑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참지 못하시는 죄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혼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인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욕망이나 행복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5.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히 13:5)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자족’입니다. 사실 자족한다는 말을 잘못 들으면 의욕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은 자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고 풍부한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뜻에 따라 살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비결을 터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적 조건의 풍성함의 이유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에 능력의 원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기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목표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 목표’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각자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며, 자족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고난과 어려운 상황 중에 (상호간, 가족간, 지체간의) '사랑'의 파위를 경험했던(받은 경우) 사례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육체적이나 상황적으로 내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주 안에서 이웃을 위해 손해 보는 심정으로 순종하여(베푼 경우) 그들을 섬겼을 때에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내 안에 탐심과 욕망(명예욕, 재물욕 등)을 절제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자족'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자족의 마음으로 감사한 것들과 그 이후의 내 삶에 임한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